

“다시 노동절,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

- 63년만에 제 이름을 찾은 노동절 기념식, 영빈관에서 개최
- 소년공 출신 대통령 노·사·민·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노동주체를 초청하여 노동의 가치 기려
- 청계광장 일대 5.1km 걷기, 전시·체험 부스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거리축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다시 함께하는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노동절은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주체만의 기념일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절이 되도록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고자, 그간 노·사 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행사 전반을 함께 준비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모든 일하는 사람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노동주체들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기념식에 이어 청계광장 일대에서는 5.1km 걷기 행사와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같이 걷고 함께 놀자’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거리축제가 진행된다.

< 노동계·시민사회·경영계와 다양한 직군·세대·성별·국적 노동자 한자리에 >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노총 위원장, 시민사회·경영계 대표들과 더불어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이주배경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130여명이 참석했다.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노동감독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사 등)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는 모두의 노동절이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세대와

직종의 노동자들을 초청하면서, 특히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 공헌에 기여하거나, 각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과 재도약을 이룬 노동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온 이들을 우선 고려했다.

기념식의 문을 연 주제영상에는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를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경비노동자,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어린이집 선생님 등 다양한 노동의 모습이 담겼다. 우리의 일상이 수많은 노동의 수고로움으로 이어져 있으며, 서로의 노동이 연결돼 사회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노동의 가치, 연대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 >

이번 기념식 핵심 순서 중 하나는 “노동의 목소리” 낭독이었다. 노동계와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이주배경 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각자 입장에서 미래 노동 시장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밝혔다. 낭독자들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외치며 마무리했다.

<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노동절 유공자 훈장 수여 >

대통령은 노동절 유공자에 대해 훈장을 수여했다. 이유범(금탑, 지승ENG 품질관리 부장), 강석윤(은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염정렬(철탑, 전국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3인이 유공자 대표로 훈장을 수여받았고, 이날 미처 시상하지 못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5월 6일에 별도 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마지막 순서로 노동자 합창단(종합 예술단 봄날) 축하공연으로 노동의 역사, 안전, 연대와 희망을 노래하는 메들리가 이어졌다. 합창단 공연 중 무대에서는 나와 가족, 이웃, 동료의 노동을 응원하는 릴레이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응원의 글들이 송출되며, 국민의 응원과 함께 기념식이 마무리되었다.

<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청계광장 일대 5.1km 걷기 거리축제 즐겨 >

한편, 오전 11시 30분부터 청계광장 일대에서 “모두의 노동절 거리 축제”가 진행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축제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1일을 상징하는 5.1km 걷기 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전태일기념관과 평화시장을 거쳐 다시 전태일기념관으로 돌아오도록 구성되었고, 개회식 이후 노·사·정 및 국회 주요 인사가 스타트그룹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행사는 17시까지 진행되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함께 걷고, 보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청계광장을 비롯한 걷기 코스 곳곳에는 시민들이 노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스와 전시를 운영하고, 스탬프투어 형식으로 진행되어 거점별 스탬프를 모아 코스를 완주한 참여자에게는 경품도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 VR 체험(산업안전공단), ▲2종 직업체험 및 진로 관련 게임(잡월드), ▲전태일 평전 필사(전태일재단)와 같은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 및 고용·노동 정책 상담 등이 운영되며, 부스별 다양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태일기념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4월에 진행한 「노동의 순간 사진 및 51초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 등을 전시한다. 그 외 청계광장에는 가족·친구·동료와 함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고, 축하공연과 골든벨 퀴즈 대회(16시)도 열린다. 어린이, 청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해 ‘노동의 가치’를 체감하며 ‘노동절’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노동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날로, 서로의 노동을 응원하는 열린 축제의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존중받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쓸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더 인정받고, 일하는 모습은 달라도 모두의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고 밝히며, “나라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친구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2026 다시 함께하는 노동절 기념식 개요
2. 정부포상 수상자(3인) 명단

3. 2026년 노동절 유공자(훈·포장) 명단
4.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 개회사
5.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 포스터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2-7587)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589)



1] 일시·장소

- '26. 5. 1.(금) 9:30~10:20, 청와대 영빈관

2] 슬로건

- “다시 노동절,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

3] 참석자

- 정부측 초청인사 등 130여 명(노·사·정 주요 인사를 비롯해 대표성·상징성을 가진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로 구성)

4] 행사 주요 프로그램**1 (오프닝 영상)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하루의 모든 순간에 노동이 함께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

- * 1인칭 시점에서 집을 나서며 만나는 경비노동자,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사무직 노동자, 택배기사, 어린이집 교사, 병원의 의료진, 제조현장 노동자 등 포함
- * 노동계 대표(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및 경영계 대표(경총 회장)

2 (노사 대표 축사) 노사 대표*가 노사 입장에서의 노동절의 의미, 노동의 가치·헌신에 감사, 희망하는 미래 등을 담아 축사 전달**3 (노동의 목소리) 다양한 노동 주체별* 노동존중, 상생, 좋은 일터에 대한 바람 등 + 마지막 문단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일의 미래에 대한 의지**

- * 노동계, 청년·여성·프리랜서·중장년·이주노동자·장애인

4 (퍼포먼스) “노동의 목소리” 낭독 주체 → 무대 LED 화면에 띄워진 손바닥을 누르면 각 주체별 키워드가 나타남

- * ▲노동계 - 안전, 연대 / ▲청년 - 공정 / ▲여성 - 평등 / ▲중장년 - 숙련 / ▲프리랜서 - 혁신 / ▲장애인 - 포용 / ▲이주노동자 - 존중

⇒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노동주체가 함께 기념식 슬로건을 완성시키면서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를 함께 마무리

- ⑤ (주빈 기념사) 노동의 가치에 공감, 노동자 헌신에 감사 → 노동 존중 +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의지 전달
- ⑥ (유공자 포상) 노동절 유공자 중 대표 3인* (훈장 포상자: 일반노동자, 노조 간부, 숨은 유공자) 시상
- ⑦ (축하 공연) 노동계 합창단(봄날: 비정규 노동자 등으로 구성)이 연대·화합의 의미를 담은 노동가요 등 노래 메들리(3곡) 공연
 - * 공연을 하는 동안 무대 뒤 화면에서는 일터에 나간 가족·친구·동료 등을 위한 릴레이 응원·희망 메시지(SNS 이벤트 사전 수집) 송출
 - ** ▲불나비(노동야학), ▲목숨은 지켜야 한다(故김용균 추모),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 기념식 세부 식순 >

구분	시간	내용
입장	9:30~9:31	· 입장
국민의례	9:31~9:32	· 인사 및 기념식 소개, 국기에 대한 경례
오프닝 영상	9:32~9:35	· 주제영상 상영(“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
축사	9:35~9:44	· 노사 대표(양대노총 위원장 + 경총 회장) 축사
노동의 목소리	9:44~9:56	· 노동계 등 다양한 노동주체*가 무대에서 노동존중, 상생협력 및 성장, 미래 노동의 비전 등을 담은 “노동의 목소리” 낭독 * 여성·청년·장애인·중장년·이주노동자·프리랜서 등
퍼포먼스	9:56~9:59	· 대통령과 다양한 노동 주체들이 함께 LED 노동절 메시지 퍼포먼스 → LED에 띄워진 각 주체별 키워드**를 누르면 영상 효과와 함께 행사 슬로건 송출 * ▲노동계 - 안전, 연대 / ▲청년 - 공정 / ▲여성 - 평등 / ▲중장년 - 숙련 / ▲프리랜서 - 혁신 / ▲장애인 - 포용 / ▲이주노동자 - 존중
기념사	9:59~10:6	· 기념사 : 노동의 목소리 낭독 내용과 퍼포먼스를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 노동자 헌신에 감사 ⇒ 노동 존중 +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 전달
포상	10:06~10:12	· 노동절 유공자 포상(훈장 3점) + 사진 촬영
축하 공연 (중창)	10:12~10:20	· 합창단(봄날) 노동가요 메들리 중창 공연 + 무대 뒤 화면에서는 릴레이 응원·희망 메시지 송출(SNS 이벤트 사전 수집)

금탑산업훈장 지승ENG 품질관리부장 (수공기간: 48년)



이유범
(59년생)

47년 이상 산업현장을 지키며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품질 혁신에 헌신하며 후배 양성과 현장 경쟁력 강화를 이끈 품질 장인입니다.

- 78년 현대중공업 입사, 선박엔진분야 숙련기술자로서 정년퇴직 후 협력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품질 혁신, 기술 전수, 인재 육성
- 선박엔진 생산에 최적화한 EPMS 구축(연 100억 원 이상 원가 절감), 공정·품질·안전 1,435건 개선 제안, 안전 품질 지식재산권 4건 등록
- 찾아가는 맞춤형 공장혁신 활동, 외국인 노동자 자국어 매뉴얼 제작, 특성화·직업계고 진로·기술멘토링, 울산시민 자서전 집필

은탑산업훈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수공기간: 37년)



강석윤
(62년생)

수십년 간 노동조합 리더로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 롯데월드노동조합 위원장, 관광서비스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등 역임하며 관광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및 산업생태계 보호에 기여
- 노조법 개정, 공무원위원회 법제화 등 노동입법 및 정책개혁의 핵심적 역할, 현장정책단 출범(우문현답)으로 상향식 정책체계 구축

철탑산업훈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수공기간: 25년)



염정열
(77년생)

노동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처우 개선과 단체교섭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방송작가 노동권 개선에 헌신(조합원 30명→100명), 최초의 단체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끔, 전국 순회 간담회 및 표준계약서 마련
- 전국 15개 지역 MBC 상대 개별교섭 추진(14개 지역사와 단협 체결), 방송작가 최초 원고료 지급기준 협약 체결·제도화(타 방송사 확산)

연번	훈격	성명	소속	직위
1	금탑	이유범	지승ENG	품질관리부장
2	은탑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3		이통묵	기아(주) 오토랜드 화성	책임엔지니어
4		최미라	순천향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5	동탑	문철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SK인텔릭스통합지부	지부장
6		이상배	(주)케이피엘경영기술원	사원
7		장병도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의장
8		허호성	한국전력공사	차장
9	철탑	염정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10		이창환	농심태경(주)대구공장	팀장
11		이치훈	前 금호석유화학(주)여수공장 노동조합	위원장
12		이현효	현대위아(주)	총괄기장
13	옥조	박원권	양산우체국	우정주사
14	석탑	김성진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15	석탑	박부서	정우금속공업(주)	부장
16	석탑	이준환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	사무국장
17	석탑	최승일	대경정밀	개발이사

연번	훈격	성명	소속	직위
18	포장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
19		김동술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신화여객운수분회	위원장
20		류경오	롯데렌탈노동조합	위원장
21		서영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봉제인공제회	업무팀장
22		안병석	서울교통공사	노무처장
23		양구석	충북지역버스노동조합 청주교통노동조합지부	지부장
24		양승완	삼양식품 노동조합	위원장
25		윤영남	연세대학교의료원	인재경영실장
26		윤오균	나투라페이퍼(주)	부장
27		윤희신	삼성중공업(주)	기원
28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29		이준희	LG디스플레이(주)	계장
30		임성현	이조 이엔지	기장
31		조미현	SK플라즈마(주)	G
32		최재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33		황선주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장
34		황용준	SK하이닉스노동조합	위원장

화창한 봄날,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동료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주신 노동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데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노동절을 맞아
서울의 심장부, 이곳 청계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 불러보는 ‘노동절’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온전히 ‘쉼’을 누리며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 되길 염원합니다.

그 마음을 모아, 그간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5월의 첫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같이 걷고 함께 놀며,
서로의 노동을 응원하고 싶은 설레는 마음으로
열린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걷게 될 5.1km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거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56년 전 스물두 살의 청년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이 노동의 역사를 바꾸는 불씨가 되었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곳에서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전태일의 정신과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새겨진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절절한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곤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목표는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그 한 문장을
일터에서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라고요.

일하러 나가서 다치지 않고 돌아오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으며,

어떤 형태로 일하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에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프리랜서도 함께합니다.

일하는 모습은 달라도, 그들의 존엄과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딛는 이 한 걸음을
내일도, 모레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축제가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를 기리고,
일하는 모든 분들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뜻깊은 행사로 안전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 기념 5.1km 걷기 (거리축제 개막식 11:30, 걷기 출발 12:00~)

청계광장 ~ 전태일기념관 ~ 평화시장 같이 걸어요
※ 스탬프투어 완주 시 기념품 증정(소진 시까지)

노동절 골든벨 퀴즈 대회 (16:00~)

총 100만 원 상당 기념품 증정

《연극 전태일》갈라공연 (16:00~17:00)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청계광장부터 청계천을 따라
전태일 다리까지 이어지는 시민참여형
부스 프로그램** (10:00 부스 운영 시작)

『전태일평전』 필사하기, 사진 전시, 산업안전 VR 체험,
뷰티·타투 체험, 풀빵 나눔, 보물찾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함께 놀아요

문의 : 전태일재단 02-3672-4138

**2026. 5. 1.
청계광장**

전태일기념관 · 세운교 · 평화시장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전태일재단**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시민행동

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KEF 한국경제자유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태일기념관운영위원회 한국노동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